

‘멜라민 파문’ 유통 현장 가 보나...

판매 금지 품목 슈퍼 주인도 몰라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단속반이 일곡동 모 편의점에서 판매 금지된 중국산 가공식품을 확인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가 중국산 모든 식품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문제 식품에 대한 수거나 판매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3·7·10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6일 중국산 305개 식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하는 동시에 유통 및 판매 금지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산 식품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을 제외한 소형 마트나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는 해태제과의 멜라민 함유 과자들이 팔리고 있고, 판매 중지 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305개 제품 일일이 확인 어려워 중국산 아닌 ‘수입산’ 표기 헛갈려

가공도 원산지 표시 규정이 허술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305개 판매 금지, 업주·공무원도 헛갈려= 식약청과 해태제과는 멜라민 공포의 원조격인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 각 구청 단속반은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일대 슈퍼마켓 등에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4박스가 발견됐고, 남구 주월동 모 슈퍼마켓 등에서도 11박스를 수거하

는 등 이날 하루 광주지역에서만 40여 박스를 회수했다.
 해태제과 과자제품에 멜라민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된 지난 24일 이후 4일이 지났는데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305개 식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 이후 이들이 지난 2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주월동 J초교 앞 문방구, 단속을 나간 남구청 식품위생과 직원이 문방구 안에 전시된 과자 등 식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판매 금지된 305개 중국산 식품 판매하고 계산가요.”(공무원) “카스타드 제품은 안 팔고 있는데요. 중국산 식품은 판매하긴 하는데 금지 식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문방구 주인) 남구청 직원이 30여분간 걸쳐 문방구 안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중국산 비스킷이 발견됐다. 유통·판매금지 305개 품목에 포함됐지만 문방구 주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305개에 달하는 중국산 가공식품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쉽지도 않다. 소형 마트나 문방구 하나 확인하는 데 무려 30~40분씩이나 소요됐다. <2면으로 계속>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순천 남도김치, 배용준과 손잡고 ‘한류 마케팅’

일본인 입맛 사로잡았다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의 ‘남도김치’가 한류스타 배용준씨의 소속사가 운영하는 한국전통요리점과 손잡고 일본 공략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8일 순천농협 남도김치공장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일본사무소와 배용준씨의 요리점 ‘고시레(高知禮)’는 지난달 일본의 이세탄백화점 도쿄 신주쿠점 매장에서 300g짜리 ‘고시레 배추김치(남도김치의 일본명)’ 1만5천여개를 1주일만에 판매했다. 배씨의 생일(8월29일)에 맞춘 ‘스타마케팅’과 남도김치 특유의 맛이 어우러지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이다.

김서현 남도김치공장장은 “현지 판매가격이 300g당 600엔(6천원)으로 일반 김치보다 200엔이 비쌌는데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면서 “300g짜리 1개당 수출가는 1천400원으로,

이번 마케팅으로 2천여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순천 남도김치가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것은 한국산 김치 통신판매에 주력해온 농협 일본사무소와 고시레의 협력이 주효했다. 농협 일본사무소는 올해 5월 인기 드라마 ‘대장금’에서 요리 고문으로 활동한 이종순씨와 고시레 관계자들을 남도김치공장에 급파했다.

이들은 순천에 1주일 동안 묵으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산 김치를 선택할 때 가장 꺼리는 신맛을 줄이고, 일본 조미료인 ‘후레쉬파워’를 가미한 저속발효법을 적용해 달착지근하면서도 저장성이 뛰어난 ‘고시레’ 배추김치를 만들어 냈다.

특히 1년 숙성된 멸치젓과 양파 등 천연조미료를 사용해 담백하면서도 혀끝을 감도는 고시레의 감칠맛과 절

저한 위생관리도 일본인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이세탄백화점에서의 성공은 고쿠보와 자스코 등 일본 굴지의 농산물 유통회사들까지 움직였다. 고쿠보는 일본내 600여개 할인점에 고시레 배추김치를 팔겠다고 판매물량을 대량 주문했고, 자스코 역시 일본 수도권 할인매장에 납품될 물량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김 공장장은 “최근 고시레 배추김치 생산라인을 새로 설치하고, 1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해 지난 9월 초부터 매주 2만개씩의 물량을 생산하다가 이달 중순부터 2만5천개로 늘렸다”면서 “그간 중국산에 밀려 연간 4억원에 머물던 대일본 수출액을 올해 안에 1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 대표 문화상품 ‘강진청자’

국제 외교무대 본격 나선다



외교통상부가 외교 문화행사에 강진청자 참여를 공식 요청하는 등 곳곳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 강진청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 나서게 됐다.

외통부는 최근 강진군에 공문을 보내 2009년도 유럽국가 수교기념 문화행사와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을 연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강진군은 내년 4월11일부터 7월 23일까지 프랑스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6개국에서 강진청자순회전

을 계획하고 있다.

외통부는 공문을 통해 “강진청자 전시회에 수교기념행사가 열리는 유럽 20개국을 포함시켜 달라”면서 “강진청자 유럽전시회와 외교행사를 연계하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물론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 현지 대사관들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김중재 재이탈리아 대사는 최근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내년 청자 유럽순회전시회때 로마를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김 대사는 “올 강진청자 미국순회전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미국 일간지와 국내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강진청자순회전이 로마에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정부 차원의 러브콜은 그동안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에서 열린 외국순회전을 통해 강진청자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진=박진표기자 lucky@

당정, 식품 집단소송제 등 도입

해태제과 과자 4건서 멜라민 검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위해식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집단소송제와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OEM(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생산)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 크기의 2분의 1이상의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점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발(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태제과 ‘미사랑 코코넛’(유통기한 08.12.01)에서 새로 멜라민이 검출되고 미사랑 카스타드 3건(유통기한 08.09.24, 08.11.30, 08.05.06)에서도 다시 멜라민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국밥(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까지 총 4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출국...오늘 한·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러시아 공식 방문을 위해 28일 오전 출국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주러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4일간의 방러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방러 이틀째인 29일에는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한 뒤 크렘린 대공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북핵문제 해

결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방각국 청년 581인 연차와 장학금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1년간 581인 연차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남부대학교 입학처 062-270-1000

900억 투자의 품질 고집
 호남 최고등급 청정 원유로 만든 세계 일류음식의 유서품 - 이제 남양유업 호남공장에서 탄생합니다

남양유업은 900억 투자의 품질 고집으로 호남 최고등급 청정 원유로 만든 세계 일류음식의 유서품 - 이제 남양유업 호남공장에서 탄생합니다.